

김승환 도교육감 “급식재료 점검”

확대간부회의서 전문가 자문 통해 먹거리 정비 작업 주문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이들 먹을거리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아이들 건강과 환경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이들 먹을거리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아이들 건강과 환경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어려서부터의 입맛이 평생 식습관을 좌우하는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위험한 음식물이라고 지정된 것까지 아이들에게 먹여야 하겠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먹거리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 10대 불량식품으로 △소분류이류 △햄·소시지 등 가공육류 △기름에 튀긴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류 △과자류 △소금에 절인 식품 △농조림류 △인스턴트 식품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을 선정할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경써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교육연구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교육연구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문화 연구개발 ‘눈에 띄네’

전북대 박미라 교수팀

전북대학교 박미라 연구교수팀(의학과)이 연구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 교수팀은 지난 2018년 전통문화 융합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1 단계로 2021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을 지원받아 블록코체형 한지 면상 발열 장판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전통 한옥에 들어가는 한지 장판의 단점을 극복해 블록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내구성과 실용성, 경제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북대와 지리산한지(유), 나눔, ECO융합섬유연구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재)ITI시험연구원인 함께 전통문화와 신기술이 결합된 블록코체형 한지 면상 발열 장판 개발하고 이를 전통 한옥에 적용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3년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은 현재까지 관련 분야에서 SCI 및 SCIE 논문을 19편을 발표했고, PCT 출원 1건, 국내특허 출원 8건, 기술이전 2건, 정보원은 물론 단위학교에서도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블록코체형 한지 면상 발열 장판 디바이스

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이번 연구과제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리플렛과 온라인 SNS용 카드뉴스 등도 제작하고 있다.

연구팀은 그간 밀도가 높고 고강도의 평량 200g/㎡이상의 한지 부직포의 양산화 공정을 개발해 왔다. 개발 중인 블록코체형 한지면 상발열장판은 여러 종류의 탄소면 상발열체와 리미티팅 코팅해 내구성을 높였고, 220V 가정전압에서 70℃ 이상 발열 및 100Ω 이하의 전기저항을 갖도록 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온도제어도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해 개발이 완료되면 한옥 바닥 난방 시스템뿐 아니라 산업용 난방 장치, 그리고 최근 친환경 전기 자동차와 항공 시트 등에도 널리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식생활관 특별 위생·안전 자체 점검

전북교육연수원(원장 김학산)은 7일 연수재개를 앞두고 식생활관 특별위생 및 안전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상승과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5~8월)를 맞아 식생활관 위생관리와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고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급식환경을 보수하고 배기후드 청소 및 방역 소독을 하며, 급식 종사자의 개인위생·안전 교육과 식품 검수요령 및 조리시 공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식생활관 출입 시 손씻기와 손소독, 1m이상 거리유지 철저, 답화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산 원장은 “원산지 확인 및 심상한 식재료 구입과 조리기구 소독을 자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신설... 자소서 폐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역인재 확대와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총 4,178명으로 스마트팜학과 신설로 전년 대비 30명이 증원됐다. 수사에서 2,771명(66.3%), 정시에서 1,407명(33.7%)을 선발한다.

수시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는 2020학년도까지 의학계열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역인재의 다양한 모집단위 선발을 요구하는 교사 및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1학년도 29개 모집단위, 262명을 선발하고 2022학년도에는 47개 모집단위, 421명으로 확대하여 선발한다.

특히 2022 대입부터 2+4년제인 약학전문대학원 체계에서 6년제 약학대학 학부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총 33명으로 수사에서 24명(기회균형 3명 포함), 정시에서 9명을 선발한다. 총 모집인원 33명 중 정원 외로 선발하는 3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기회균형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30명을 선발하는 첨단학과 ‘스마트팜학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신설된 융합학과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정원 동결 또는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첨단 산업 등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첨단학과 신설 및 증설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대학교는 특성화된 농생대와 공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는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4학년도에 폐지 예정인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를 2022학년도에 폐지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은 스포츠학과 특기자전형 폐지, 예체능계열(수시/정시)의 전형방법이 통합·단순화 된다.

홍철은 입학본부장은 “전북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과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을 준수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은 전북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고교-대학연계 온라인 특강 서비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대학연계 온라인 특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8일 전주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교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창의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형태로 강좌 개설을 결정했다. 온라인 특강은 직업특강, 과목강 교양특강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특정 직업과 학과, 진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의 교양강좌를 통해서 인생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도 쌓을 수 있다.

이번 특강에는 고등학생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는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덕질의 재미 덕질의 즐거움(백진우 교수), △인공지능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고선우 교수), △차이치는

패션클라쓰-패션의 의미와 전과과정(서상우 교수) △Smart Communication-미디어 전문가(이근호 교수), △재미있는 의식전문가 이야기(이대희 교수), △전지적 세프 시집(김수인 교수), △건강을 밝히는 또 다른 빛 그리고 내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사진(유승만 교수) 등이 게재되었으며, 이후 온라인 강좌도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늦춰진 수업 일정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 온라인 모의 면접 등도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 프로그램이 위축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진로 준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꾸나가야 합니다